

존경하는 대한토목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토목학회 제53대(2021년도) 회장으로
으로 입후보한 동의대학교 건설공학부 김가야(金嘉也)교수입니다.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학회 회원, 특히 원로 및 참여회원님, 학
회임원님, 평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
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토목학회 창립(1951년 12월23일, 구 부산시청) 지역**
인 부산에서 태어나서 일본(오사카 대학교) 유학 후, 1989년 당
시 우리 나라 최대 토목사업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인공섬(해상신
도시 180만평, 2조 5000억원) 건설사업의 참여권유(전 안상영 부산시장, 1938년생, 서울
대)로 부산시 시정연구단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건설
본부장(부사장), 부산광역시 정책특보(정부부시장)**를 수행한 후 2001년부터 동의대학교 산
학협력단장, 산업대학원장 등을 역임하고 **건설공학부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부시절부터 지금까지 토목인으로서 45년째 **산·학·관·정(産·學·官·政) 4자 분야**에서 건설
산업활성화 과업으로 건설기술(학계 및 연구기관), 건설행정(국토부 및 광역단체), 건설경
영(산업체), 건설법제도(국회) 등 건설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연계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에는 1990년 입회 후 부산·울산·경남지회 활동과 본회 이사 등을 역임한 후,
현재 **본회 부회장 및 부산·울산·경남지회장**으로서 토목 관련 공공기관(부산교통공사, 부산
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디자인진흥원,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일거리-먹거리 창출과 대한토목학회의 존재감 및
위상강화를 위한 역할을 의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9개 지회모임인 지회
발전위원회의 2020년도 위원장**으로 추대됨을 계기로 지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
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저는 2018년 12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 과거보다 복잡하고 강화된 제도와 조건하
에 적정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점과 건설기술자 등의 자존심 하락, 대학교 신입생
중 상대적으로 입학성적이 낮은 학과로 전략한 토목공학과와 현재의 모습, 토목에 대해 잘
못된 국민의식 등 누군가 나서서 국회, 국토부 등에 **정무 및 정책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회장후보로 추천해주신 학회 회원 분들께서는 이러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인 면
에서 어렵고 참혹한 시기에 학계차원을 넘어서 **정무 및 정책적으로 학회의 비상관리, 위
기관리** 측면에서 학회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하는 회장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말
씀을 많이 주셨고, 함께 학회 발전에 동참하시겠다는 말씀에 지방대학 출신이지만 학회의
일원으로서 **대한토목학회 창립터인 부산지역**에서 용기를 내어 회장에 입후보하게 되었습
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토목공학 위기관리, 토목학회 위상강화 !

- 일거리·먹거리 창출, 토목복지 중심으로 -

첫째, 위기관리 및 재정건전성을 위한 「건설하고 상생하는 조직창출」

- 위기관리 및 일거리·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정(産·學·官·政) 협력위원회 구성
 - 국회, 행정기관, 공기업, 건설관련 유관단체와 업무협약, 정책포럼 개최
(장소 : 국회의원회관)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발굴 추진
- 자연재해 및 건설안전 예방 중심의 외부수탁사업 수주 증대
- 본회와 지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 기획 및 지회 활성화방안 추진

둘째, 소통과 협력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학회실현」

- 소통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국토건설 및 인프라관련 정책에 적극대처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와 구심점 역할
 - 건설영토확장 등 국가건설경제지도 작성 및 정부건의
 - 토목 복지 : 긴급재난재해 발생대비 「119토목구조대」 창립 및 전국 확대
(부산울산경남지회, 2019. 7월 25 창립) 추진
- 회원의 학회 참여 활성화 방안 추진
 - 공직자 및 젊은 회원자격 확대를 통한 회원증대
 - 원로참여회원 및 젊은 회원의 친목도모 계승확대와 학회 참여도 확대 추진

셋째, 미래융합가치에 부응하는 「진화하고 성장하는 학회 구축」

- 남북경협 및 해외건설사업 참여 등 미래융합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젊은 인재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사업 발굴 및 장학사업 확대
- 본회 및 9개지회의 국제자매도시와 협력확대 및 국제학회 공동연구 추진

친애하는 대한토목학회 원로회원님, 참여회원님, 학회임원님, 평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토목인의 긍지를 가지고 초심으로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산·학·관·정(産·學·官·政) 4자의 결속으로 학회의 비상관리, 위기관리를 정무적으로 수행하여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모으면 토목인의 자존심과 명예회복, 학회의 위상강화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정책특보(정부부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정무총괄 및 정책적 업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배려와 양보로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기호 2번 김 가 야 올림